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30권 제3호, 2023, pp.141~166.

청년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관한 연구: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이 병 훈** · 김 은 경*** · 김 한 나****

요 약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11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표본인 청년들에 대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과 더불어 취업자의 경우 일자리의 안정-불안정을 구분하기 위해 헤도닉 가중치를 적용한 불안정노동지수(PLI)를 산출하여 안정 취업, 불안정 취업으로 구분 후 4개의 노동시장 지위를 측정한 다음,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이행궤적을 유형화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에 따르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안정-취업형', '불안정-취업형', '불안정-시장진입형', '시장이탈-지속형' 이상 4개의 상이한 유형으로 확인되어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불안정-시장진입형'을 제외한 3개 집단유형이 분석기간인 10년 동안 대체로 동일한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유형에 대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경로에 유의하게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검출코자 하였다. 그 결과, 성별·연령·학력·혼인여부·거주지역 등 개인화 요인들이 청년의 노동시장 지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성별과 학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재생산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 한편, 가구 계층적 요인들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한 학술적인 논구와 정책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이해하고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어: 청년 노동시장, 노동시장 분절구조, 이행궤적 유형화, 개인화가설, 가구계층화가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3530). 또한,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hlee@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witheunk@gmail.com)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수료(gkssk4300@gmail.com)

1. 머리말

청년은 보통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세대라 일컬어진다. 그런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은 순조롭지 못하였고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그리고 늘어나는 NEET 및 구직단념의 잉여집단화로 인해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다(Lee & Kim, 2012). 청년들의 취업난이 국가적 난제로 다뤄지는 가운데, 지난 수 년 동안 언론을 통해 공정성담론·워라벨(Work-Life Balance) 생활태도·개인주의 가치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MZ 청년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부각하는 사회정치적 대중담론이 크게 주목받았다. 반면, MZ세대담론에 대해 청년집단의 내부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그런 세대는 없다'(신진욱, 2022)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청년집단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들의 이행궤적이 단일하거나 동질적 패턴으로 나타나기보다 여러 이질적 유형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이행궤적의 유형화와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분석결과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중적 청년담론으로 '수저계급론'(이병훈, 2017)이 널리 유포될 만큼,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그들의 사회계층적 배경에 따라 구획되고 있다는 사회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행궤적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경험적인 연구가 더욱 천착될 필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로의 이행궤적에 있어 어떠한 분절적 패턴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확인되는 분절적 궤적유형에 대해 어떠한 배경요인들이 그 단절성을 고착화하고 있는지, 또는 그 분절구조의 탈출궤적을 가능케 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청년노동시장의 구조적 실체를 판독하는 중요한 연구의의를 가질 것이다.

특히 2011년은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한 청년들이 이행기에 놓인 시점이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졸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졌고, 수저계급론과 같은 대중적 담론이 등장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이왕원·김문조·최율, 2016; 황선재·계봉오, 2018).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2011~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 기준 만 19~34세의 전체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경로에 대한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적용하여 이행궤적 유형들을 판별하고, 청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 계층조건을 중심으로 그 이행궤적의 분절적 구조화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주요 영향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및 유형에 관한 국내 학술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에 따라 분석대상과 이행기준의 조작화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행경로와 특성에 대해 상이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을 고졸 이상자, 취업자

및 대졸자 등으로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행기준 또한 임금, 고용지위와 같은 단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2-3가지 조건들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한 이행궤적 유형이 도출되고, 적잖은 차이가 나는 규모가 추산되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 현상의 분석대상과 이행기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작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청년 내부의 이질성과 분단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취업자 뿐만 아니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이행궤적은 노동시장 지위를 기준 삼으나, 취업자의 경우 객관적 노동조건의 다차원 지표들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지수를 산출-적용하여 판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가려내고자 함에 있어 분석대상인 전체 청년집단에 대해 그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기준 삼아 안정 취업, 불안정 취업,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는 포괄적 범주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청년들은 세대 또는 연령 구분에 의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호명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학력, 젠더, 가족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 노동시장 이행 역시 청년집단에 내포된 다양한 특성에 의해 이질적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최근까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청년집단이 단선적인 노동시장 이행경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궤적의 경로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 여부 및 학력 등을 반영한 출생년도 코호트를 구성하여 저임금 지속 여부(박성재·반정호, 2012; 김진주·조민효, 2016; 변금선, 2018), 고졸 취업자의 성별, 학력별 노동시장 이행 유형(김성남·하재영, 2018), 대학 소재지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유형(홍성표·임한려, 2020) 등 다양한 연구주제에 따라 청년층의 상이한 노동시장 이행궤적들이 도출되는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표 1〉 참고). 이들 선행연구로부터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화에 대한 두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이 단일한 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이 단일한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두 번째, 복수 경로의 경우 분석 기간 내 일정한 상태로 고정되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시작 시점의 상태를 유지하는 고정 유형과 그 상태

가 시간 경과에 따라 바뀌는 변동 유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졸자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분석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지속(약 26%), 괜찮지 않은 일자리 지속(16.7%), 미취업 지속(20.8%)으로(박나리·김교성, 2021), 또는 1차 노동시장 유지(약 7%)와 2차 노동시장 유지(약 49%)로(이용호·이원익, 2022) 이행기간에 걸쳐 노동시장 지위/조건에 있어 변동이 없는 고정유형이 전체 청년집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 노동시장의 분단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년집단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해 그들을 단일한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이행궤적을 판별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적용함과 동시에 그 이행의 구체적 궤적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경로를 분석함에 있어 임금 및 소득, 니트 여부, 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이 단일한 차원의 조건이나 지위를 판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질을 엄밀하게 따져보는 분석을 제시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의 일부 연구에서는 불안정성 개념을 참조하여 임금 및 소득, 경제활동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일자리 질의 판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금선(2018)은 임금(경제적 안정성)과 종사상 지위(고용 안정성)를 기준 삼아 불안정성의 서열척도로 구성하였고, 박나리·김교성(2021) 역시 중위소득을 감안한 소득 불안정,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고용불안정, 부채 및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른 부채불안정을 종합하여 불안정성을 점수화하였다. 이용호·이원익(2022)도 비슷하게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회사규모 정보를 활용하여 불안정성을 점수화하였다. 노동시장 이행상태의 분석에 있어 임금 또는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등의 단일한 차원에 한정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불안정성 개념을 활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별하는 측정범주들로 구성된 다차원 분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불안정성 측정에 대한 단순한 기준을 제시-활용하고 있어 일자리 질의 복합적 구성을 엄밀하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 질의 구성요소에 대해 헤도닉 가중치 적용을 통해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불안정 노동의 개선된 지수 산출 방법(이병훈·김은경·송리라, 2022)을 활용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검토하려는 경우 분석기간을 청년기에 국한하기보다는 장년기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노동시장 이행과정 초기에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력 변동 등 다양한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고, 불안정성의 누적은 이후의 연령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병희, 2002; 강순희, 2016). 선행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하였으며, 특히 초기 청년기

에 고용불안정을 경험하는 경우 후기 청년기와 장년기까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반정호, 2010). 이렇듯 청년의 불안정성이 청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까지 분석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다.

〈표 1〉 청년 노동시장 이행궤적 주요 선행연구

구분	분석대상	분류기준	유형 및 궤적
박성재·반정호 (2012)	취업자	저임금근로 여부	저임금근로유지(5.4%), 저임금근로 탈출(12.6%), 저임금근로 편입(4.9%), 비저임금근로 유지(77.1%)
김진주·조민효 (2016)	전문대졸 및 대졸	월평균 소득	니트형 (21.9%), 느린 노동시장 진입형(27.7%), 빠른 노동시장 진입형(41.3%), 노동시장 이탈형(9.1%)
변금선(2018)	전체	임금수준과 종사상지위 교차(미취업,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저임금 진입 이탈 유형(12.9%), 저임금 유지 유형(27.3%),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34.9%),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유형(3.1%),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12.7%),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9.2%)
김성남·하재영 (2018)	고졸 취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 실업 및 비경제활동, 학업, 미상	(남성 고졸 취업자) 미상형(39.8%), 정규직형(34.7%), 불안정 정규직형(9.7%), 실업 및 비경제활동형(6.8%), 자영업형(9.1%) (여성 고졸 취업자) 미상형(36.5%), 정규직 후 경력단절형(19.8%), 정규직형(31.3%), 실업 및 비경제활동형(4.9%), 후진학형(7.6%)
오유진·김교성 (2019)	고졸 이상	괜찮은 일자리 여부(임금,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미취업, 가사 및 양육	괜찮은 일자리 지속(25.7%), 짧은 미취업 또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 후 괜찮은 일자리 지속(17.9%), 일자리 경험 후 미취업 또는 가사·양육(7.95%), 괜찮지 않은 일자리 지속(16.7%), 중기 괜찮지 않은 일자리 또는 미취업 경험 후 괜찮은 일자리(10.9%), 미취업 지속(20.8%)
홍성표·임한려 (2020)	4년제 대졸	비경제활동, 실업, 비임금, 임시/일용직, 상용직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6.1%), 장기준비형(12.7%), 비임금근로 유지형(16.1%), 단기준비형(21.9%), 비임금노동 전환형(7.0%), 상용-임시직 반복형(7.0%), 상용직 유지형(26.4%)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 초기 노동시장 이탈형(6.4%), 장기준비형(11.7%), 비임금근로 유지형(15.1%), 단기준비형(17.3%), 비임금노동 전환형(6.6%), 상용-임시직 반복형(9.6%), 상용직 유지형(33.3%)
박미희·홍백의 (2021)	최종학교 졸업자	순수비경활, 비경활 및 학생, 실업 및 준실업, 비임금, 임시일용직, 상용직	노동시장미진입형(8.6%), 상급학교진학형(16.1%), 장기준비형(6.3%), 단기준비형(16.2%), 불안정노동형(20.2%), 상용이탈형(5.7%), 상용지속형(27.0%)
이민서·김사현 (2021)	대졸	니트 여부	비니트-니트 변동형(4.6%) 비니트 유지형(55.3%), 빠른 니트 탈출형(33.3%), 느린 니트 탈출형(6.8%)
박나리·김교성 (2021)	대졸	소득불안정, 고용불안정, 부채불안정	초기안정진입형(12.2%), 소득불안정형(29.0%), 중기불안정진입형(9.3%), 중기안정진입형(10.4%), 후기안정진입형(29.8%), 만성불안정형(9.3%)
이용호·이원익 (2022)	대졸	비경제활동, 실업, 비임금, 상용직(2차 노동시장), 상용직(1차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 유지형(6.9%), 고용불확실 증가형(13.6%), 2차 노동시장 유지형(49.1%), 단기준비 후 1차 진입형(5.1%), 노동시장 미진입형(7.7%), 장기준비 후 2차 진입형(17.6%)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론적 관점으로 개인화 가설과 가구 계층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전자는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생애과정의 개인화로 인해 가족배경의 영향이 약화됨에 따라 청년의 개인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여전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변금선, 2018).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은 1차 노동시장보다는 2차 노동시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미취업 및 실업 등의 노동경력으로 유휴화되는 비율이 증가했다(문혜진, 2013; Lee & Kim 2012). 이처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탐색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배경이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가족배경 요인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화 가설와 가구계층화 가설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분석한 청년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화 가설의 관점에서는 학력, 성별, 혼인상태가 노동시장 이행의 이질적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고학력자와 남성인 경우 노동시장 이행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성별을 교차하여 청년집단별 노동시

장 이행궤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졸남성 〉 대졸여성 〉 고졸남성 〉 고졸여성 순으로 괜찮은 일자리 배열의 비중을 차지하여 학력과 성별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고, 대졸 여성 집단에서 가사·육아 유형이 확인되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반증하고 있다(오유진·김교성, 2019). 또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고, 이미 저임금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 탈출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성재·반정호, 2012). 혼인상태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저임금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낮다는 박성재·반정호(2012)의 연구와 기혼이 미혼에 비해 임금 및 종사상 지위를 고려한 노동 안정성이 높다는 변금선(2018)의 연구가 상반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나 조건을 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학력, 성별, 대학 소재지,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계층화 가설의 관점에서는 청년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배경 조건을 꼽고 있다. 영국의 청년 남성을 분석한 질적 연구에서는 식생활과 주거에 대한 위험이 없다면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기회를 완충할 가능성이 커지며, 노동시장 불안정을 감수하면서 개인적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 가족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Hardgrove, A., Mcdowell, L. & Rootham, E., 2015). 즉,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탐색하

는 청년들에게 가족 지원이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배경은 학력, 노동시장 상황, 고용주 채용관행과 함께 취업 기회구조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가족배경에 따라 교육과 노동시장 탐색에 대한 금전적/시간적 지원, 사회적/정서적 자원의 투자가 다양하게 조합하여 노동시장 성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Roberts, 2009).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의 계급/계층 요인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경험적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가구의 계급/계층 요인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결과를 주로 도출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들이 노동 이행 및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을 형성하여 저임금 일자리를 탈출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박성재·반정호, 2012)에서는 3년 동안의 임금 추이를 추적하여 저임금근로유지(5.4%), 저임금근로 탈출(12.6%), 저임금근로 편입(4.9%), 비저임금근로 유지(77.1%)라는 4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 결정요인 변수 중 가구변수를 투입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저임금근로 유지의 확률이 높고 저임금근로 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1차 노동시장에의 지위 확보와 2차 노동시장으로부터 탈출에 높은 가구소득이 중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미희·홍백의(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노동시장 미진입형(8.6%), 상급학교진학형(16.1%), 장기준비형(6.3%), 단기준비형(16.2%), 불안정노동형(20.2%), 상용이탈형(5.7%), 상용지속형(27.0%)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유형의 결정요인으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형보다는 미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부친이 사망 또는 무직인 경우에 비해 임금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불안정노동형보다는 상용취업형과 준비 후 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의 가능성이 커지며, 부친의 고용지위에 따라 좋은 일자리의 취업이나 구직준비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학교-노동시장 이행 유형을 도출하여 가족배경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변금선(2018)의 연구에서는 저임금 진입 이탈(12.9%), 저임금 유지(27.3%),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34.9%),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3.1%), 장기교육 임금상승(12.7%), 중간진입 임금 상승(9.2%)의 6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과거 코호트에 비해 최근 코호트의 경우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불안정성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그 이행성과에 대해 아버지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층화 경향을 밝히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배경 변수로 부모의 학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배경의 영향을 충분히 살펴보려면 부모의 직업을 비롯해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보완하여 분석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상의 선행문헌 검토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집단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이 어떠한 이질적 특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청

년 노동시장 이행궤적이 어떠한 분절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코자 한다. 둘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과 가족배경 요인을 함께 포함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개인화와 가구계층화의 이론적 시각 중에 어떤 관점이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이질성을 더 타당하게 설명하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이 어떻게 다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행과정에 개인 요인과 가구의 계층적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11년(14차)부터 2020년(23차)까지 10년간을 추적하는 시계열 분석을 시도코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1] 자료에서 2011년 만 19~34세 청년(1977년~1992년 출생)[2]을 분석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2020년까지 동일한 개인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의 상당수가 조사 시작시기에는 청년층에 속하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장년층으로 이행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3] 또한, 청년들은 학업-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의 주요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에 실업/구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자의 기본 특성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에 따라 변동가능한 변수들은 2011년과 2020년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5.93%, 여성 54.07%이며, 2011년 기준 연령분포는 청년후기가 57.08%로 가장 많고 중기(28.06%), 초기 (14.85%) 순으로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의 분포 및 변동은 중학교 이하 졸업자는 두 시점 모두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나, 그 외 상당수의 청년들이 학력 상향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2011년 40.66%로 가장 많았으나, 2020년에는 29.91%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졸업자는 54.62%(2011년)에서 63.24%(2020년)로 증가하였다. 노동시장 지위는 임금·비임금 노동의 비율이 62.5%에서 75.4%로 늘어난 반면

1)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 거주 가구, 병역의무이행자, 시설거주가구(원)을 제외한 한국 도시 거주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을 모집단으로 1998년부터 시행된 패널 조사 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총 10년(14~23차)의 기간동안 누락 된 정보 없이 매년 조사된 응답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청년의 기준은 법과 조례, 개별 사업 등에서 다양한 연령대로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까지를 청년으로 선정하였다.

3) 2011년 기준 만 34세인 표본은 2012년부터 중장년으로 이행하고, 2011년 기준 만 26세인 표본 역시 2020년에는 만 35세가 되어 중장년으로 이행한다.

비경제활동의 비율은 12.05%p(35.73% → 23.68%) 감소하였다. 혼인여부에서는 2011년에 42.78%였던 미혼자가 22.45%(2020년)로 감소하여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으로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은 2011년과 2020년에 공통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분석대상 청년집단의 기본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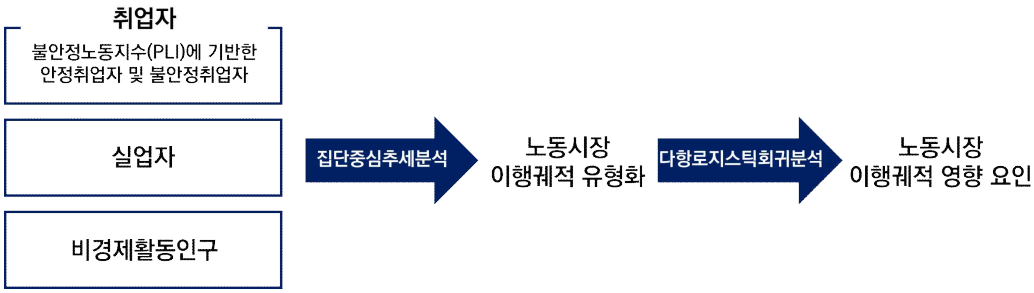
구분		2011년 (1,461)	2020년 (1,461)
성별	남성	671 (45.93)	
	여성	790 (54.07)	
연령	초기(19-24세)	217 (14.85)	[28-33세]
	중기(25-29세)	410 (28.06) ⇒	[34-38세]
	후기(30-34세)	834 (57.08)	[39-43세]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1 (2.12)	31 (2.12)
	고등학교 졸업	594 (40.66)	437 (29.91)
	전문대학 졸업	376 (25.74)	404 (27.65)
	4년제 대학 졸업	422 (28.88)	520 (35.59)
	대학원 졸업 이상	38 (2.60)	69 (4.72)
노동시장지위	임금노동	834 (57.08)	935 (64.00)
	비임금노동	80 (5.48)	167 (11.43)
	실업	25 (1.71)	13 (0.89)
	비경제활동	522 (35.73)	346 (23.68)
혼인 상태	미혼	625 (42.78)	328 (22.45)
	기혼·이혼·별거·사별	836 (57.22)	1,133 (77.55)
거주지역	수도권	661 (45.24)	670 (45.86)
	비수도권	800 (54.76)	791 (54.14)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 지위의 구분이다. 노동시장 지위는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로 분류한 다음, 취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불안정노동지수(Precarious Labor Index, PLI)를 산출-적용하여 안정 취업과 불안정 취업으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류된 노동시장 지위는 안정 취업, 불안정 취업, 실업/구직, 비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 세분화한 노동시장 지위를 기준으로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실행하여 분석대상자들의 10년에 걸친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에서의 상이한 이행경로를 형성케 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개인적 요인들과 가구 계층적 조건들을 포괄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단계



(1) 헤도닉 가중치를 활용한 불안정노동지수(PLI) 산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경로를 추적하기 위하여 실업/구직, 비경제활동과 더불어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 질에 따라 안정 취업과 불안정 취업을 구분하고자 불안정노동지수(PLI)를 산출하였다. 불안정노동지수는 노동 불안정성의 복합적 개념 구성을 반영하여 일자리 불확실, 소득 불충분, 노동조건 열악, 사회적 보호 취약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조작화해 헤도닉 가중치를 부여한 개별 점수를 산출하였다.[4] 구체적인 지표의 내용과 각 지표별 불안정 판정기준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일자리 불확실은 일자리의 규칙성 여부를 기준 삼아 직장 또는 일거리가 '있다 없다' 하는 불규칙한 일자리를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소득 불충분은 저소득(중위소득 2/3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발표된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을 활용하였다. 노동조건 열악은 주당 노동시간의 과다-과소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일·생활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유급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서 배제되는 15시간 미만을 취약한 상태로 판별하였다. 사회적 보호의 취약은 현재 일자리가 실업과 산업재해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여부를 지표로 선정하였고, 이들 보험에 하나라도 미가입한 경우 취약한 상태로 처리하였다.

---

4) 헤도닉 가중치(hedonic weights)는 일자리 특성과 응답자가 부여한 일자리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호 연계시켜 가중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노동을 구성하는 차원별 객관적 지표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화와 헤도닉 가중치의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병훈·김은경·송리라(2022)를 참조할 것

〈표 3〉 불안정노동지수(PLI)의 차원 및 지표

차원	지표	불안정 판별 기준값
일자리 불확실(J)	일자리 불규칙성	주된 일자리에서 불규칙적으로 일함
소득 불충분(I)	소득	중위임금 2/3 미만
노동조건 열악(C)	노동시간	주 15시간 미만 또는 52시간 초과
사회적 보호 취약(S)	사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라도 미가입

취업자의 노동 불안정성에 각 차원이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헤도닉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헤도닉 가중치의 산출을 위해 14차(2011년)의 청년 연령(만19~34세)에 속하는 피조사자들부터 23차(2020년) 만28~43세에 이르는 응답자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사회적 보호 취약 1.819 〉 소득 불충분 0.897 〉 일자리 불확실 0.735 〉 노동조건 열악 0.548 순으로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취업 청년들의 불안정노동지수(PLI) 값을 산출하였다(최소 0점-최대 4점).[5)]

〈표 4〉 헤도닉 가중치 분석 결과

차원(준거-안정)	Coef.	Beta	Weight (%)
일자리 불확실(J)	-.1069034***	-.0388631	0.735 (18.4%)
소득 불충분(I)	-.0967733***	-.0473868	0.897 (22.4%)
노동조건 열악(C)	-.042536***	-.02898	0.548 (13.7%)
사회적 보호 취약(S)	-.1330485***	-.0961392	1.819 (45.5%)
합계		-0.2113691	4.00 (100.0%)

주1) Robust regression 결과임. (종속변수) 일자리 만족도 (통제변수) 학력,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근속기간(월), 직종, 산업, 사업체 규모
주2) ***p〈.001

(2)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적용한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유형화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10년간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궤적유형들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종속변수(Y축)인 노동시장 지위는 취업자의 일자리 질에 따른 안정 취업과 불안정 취업 그리고 미취업자들의 실업·비경활 상태를 구분하는 4개

5) 본 연구에서 산출한 차원별 가중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중치의 구성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헤도닉 가중치를 산출한 이병훈 외(2022) 연구에서는 소득 불충분 〉 일자리 불확실 〉 사회적 보호 불안전 〉 노동조건 취약 순으로 가중치가 도출되었던 것에 비해, 청년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구의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 취약이 일자리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노동시장에로의 이행국면에서 잦은 일자리 이동과 업무환경 적응을 경험해야 하는 청년들이 소득과 일자리 그리고 노동조건에 비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범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지위 1은 2점 미만의 불안정노동지수(PLI)를 갖는 안정적 일자리의 취업자이며, 2는 불안정노동지수(PLI)가 2점~4점에 해당하는 불안정 취업자이고, 3과 4는 각각 조사 시점에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상태에 놓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X축)는 이행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종단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개년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집단중심추세분석의 변수측정

구분	변수	측정
독립변수(X축)	연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
종속변수(Y축)	노동시장 지위	PLI 2점 미만=1(안정), PLI 2점-4점=2(불안정), 실업=3, 비경제활동=4

집단중심추세분석은 반모수적(semiparametric) 집단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식별하여 잠재 집단(latent group)으로 분류한 후 그 발달 궤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Nagin, 1999; Jones, Nagin & Roeder, 2001; Jones & Nagin, 2013). 이는 계층 내 개인 간 분산이 없다고 가정하는 특징을 가지며(Nguefack et al., 2020), 이행궤적을 도출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P(Y_i) = \sum_{j}^{J} \pi_j \, P^j(Y_i) \qquad (1)$$

청년 개인(i)의 시간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Y) 변화를 Y_i라고 할 때, $P(Y_i)$는 연속적인 노동시장지위 변화의 확률, $P^j(Y_i)$는 Y_i가 j집단에 속할 확률, π_j는 개인(i)이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확률밀도함수$P(Y_i)$는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π_j)과 특정집단에 속한 개인의 종속변수 확률밀도함수($P^j(Y_i)$) 의 곱을 총합하여 계산된다. 특히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종속변수 확률밀도함수($P^j(Y_i)$)는 일정 기간(t) 동안 상호독립성이 전제되므로 식(2)와 같이 매 시점에서의 특정 집단 내 개인의 종속변수 확률밀도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P^j(Y_i) = \prod^{T} p^j(y_{it}) \qquad (2)$$

집단중심추세분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의 수를 갖는 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대우도추정법과 ln△BIC[6] 값을 참고한다. 구체적으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절

대값이 가장 작고 ln△BIC 값이 2 이상인 경우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는데, 각 기준에 부합하는 모형이 도출될 때까지 집단 수를 증가시켜 상호비교를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적합한 집단모형과 그 집단을 구성하는 궤적 유형을 찾아낸다.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유형화를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선택 분석결과는 〈표 6〉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분석기간인 10년 동안 누락 없이 모두 응답한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다루었다. 노동시장 지위 변수는 취업 청년집단에 대해 헤도닉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정 노동과 불안정 노동의 지위를 구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실업/구직과 비경제활동의 지위를 추가로 포함시켜 특정 유형(예: 시장이탈의 사례)이 제외되지 않도록 분석표본을 구성하였다. 집단 수는 분석대상자들의 이행궤적 경로에 따라 분류되는 유형들의 수를 나타내며 궤적 모형은 궤적의 형태를 나타낸다. 최적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집단 수를 임의로 늘려가며 추세분석을 반복하고, 이때 산출되는 상이한 BIC 값과 ln△BIC 값을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은 BIC 절대값이 가장 낮고 이전 모형과의 BIC 변화량의 로그값이 5.649인 선형 4개 집단으로 구성된 궤적 모형이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그들의 지위변화를 중심으로 10년간의 이행궤적을 추적한 결과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4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표 6〉 집단중심추세모형의 분석결과

집단 수	궤적 모형	BIC(n=1,461)	ln△BIC
(생략)			
3	202	-11152.90	1.701
3	222	-11038.60	4.739
4	0000	-11030.78	2.057
4	0002	-11036.95	1.820
4	1111	-10752.81	5.649
4	2002	-11026.84	5.613
4	2010	-10976.48	3.919

주: 궤적 모형의 숫자는 0=없음, 1=선형, 2=2차 곡선, 3=3차 곡선을 의미하며, 숫자의 개수는 집단의 수를 의미함.

(3)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밝혀진 상이한 이행궤적유형의 4개 집단들을 구별 짓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개인화 가설과 가구 계층화 가설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에는 청년 개인들의

6) ln△BIC 값이 0~2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며, 2~6 미만은 다소 유의미, 6~10 미만은 유의미, 10 이상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Jones, Nagin & Roeder, 200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14세 때 가족배경 요인 및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주된 설명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화 가설 관련 설명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 가구 계층화 가설의 변수로서 14세 때 가족배경은 당시 경제적 상황의 주관적 인식, 아버지의 교육연수와 직업지위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는 가구 차원의 소득·자산·부채를 중심으로 로그 값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14세의 가족배경요인으로 부모 중 아버지 변수만을 활용한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연수 응답률이 매우 낮고 직업지위[7]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지위는 국제직업지위점수(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로 변환하여 값을 산출 후 적용하였다. 모든 설명변수의 측정시점은 분석 시작 연도인 2011년 기준임을 밝혀둔다.

4. 분석 결과

1) 노동시장 이행 유형의 다양성과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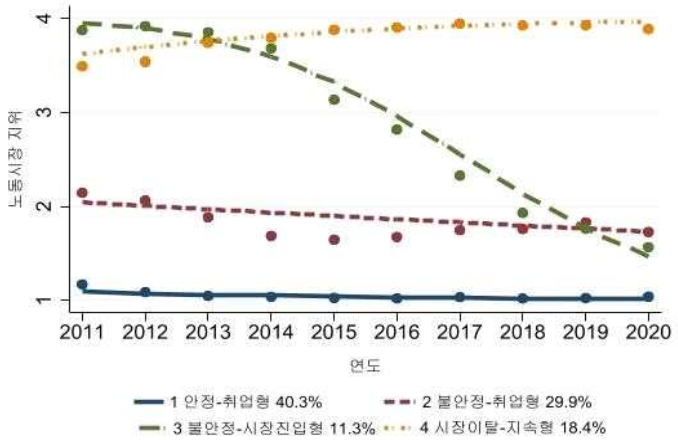
[그림 2]는 적합 모형으로 선택된 4개 유형의 이행궤적을 보여준다. 집단 1은 분석기간(2011~2020년) 동안 꾸준히 안정적인 일자리의 취업을 유지하는 '안정-취업형'으로 분석대상인 청년의 40.3%였다. 집단 2는 같은 기간 동안 불안정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불안정-취업형'(29.9%)이었고, 집단 3은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불안정한 취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불안정-시장진입형'(11.3%)의 형태를 보였다. 끝으로 집단 4는 분석기간 내내 노동시장에 진입치 않은 채 비경제활동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시장이탈-지속형'(18.4%)이었다.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첫째, 분석기간의 10년 동안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4개 유형의 궤적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밝혀지는 가운데, '불안정-시장진입형'을 제외한 3개 유형(안정-취업형, 불안정-취업형, 시장이탈-지속형)은 분석기간에 걸쳐 대체로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90%에 가까운 청년들이 안정 취업(40.3%), 불안정 취업(29.9%) 그리고 비경제활동(18.4%)의 특정 지위에 위치하면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청년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심각하게 구조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둘째, 청년 노동시장

7) 14세 때 직업지위의 경우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직업으로 대체하여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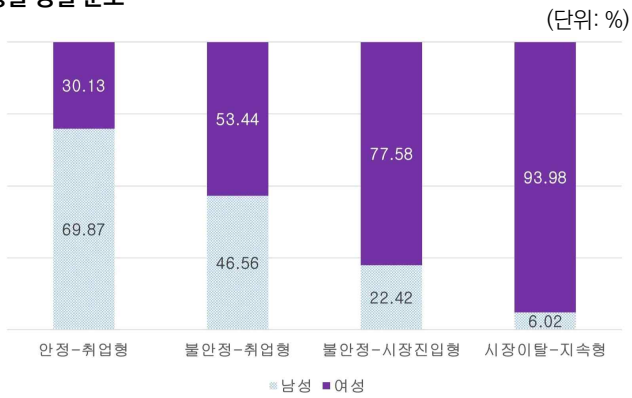
의 고질적 분단구조가 존재하는 가운데, 불안정-시장진입형에 해당되는 청년집단(11.3%)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에서 실업/구직을 거쳐 불안정 및 안정 취업의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외부로부터 가로질러 그 지위를 변동시켜온 이행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림 2]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이행궤적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남성이 안정-취업형 〉 불안정-취업형 〉 불안정-시장진입형 〉 시장이탈-지속형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은 시장이탈-지속형 〉 불안정-취업형 〉 안정-취업형 〉 불안정-시장진입형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집단유형의 구성차이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남성 중 약 62%는 안정-취업형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불안정-취업형을 포함하면 10명 중 9명은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안정-취업형 + 불안정-취업형 = 92.1%). 반면, 여성은 한 번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유형이 가장 많았고(시장이탈-지속형, 31.65%),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불안정-취업형이 안정-취업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예시하듯이 이행궤적 유형별 성별분포로 전환하여 살펴보면 성별분리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안정-취업형의 경우 남성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시장이탈-지속형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93.98%로 압도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이행궤적 유형별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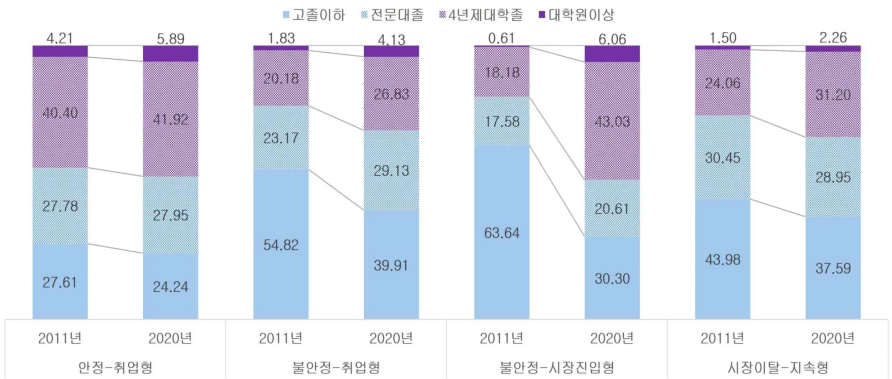
청년시기는 졸업-취업-결혼-자립/가족분리 등과 같이 개인의 생애과정에 중요 사건들을 경험하며 과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회적 연령대라 할 수 있다. 청년기의 연령대에 따라 주요하게 경험하는 사회적 사건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분화된 연령집단별로 이행궤적 유형별 구성분포를 살펴볼 필요 있다. 청년시기를 초기(19-24세), 중기(25-29세), 후기(30-34세)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기의 청년집단은 불안정-취업형(43.7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불안정-시장진입형(24.88%) 순이었다. 중기집단은 안정-취업형(38.54%)과 불안정-취업형(35.85%)이 비슷한 비중을 보인 한편, 후기는 안정-취업형이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비율(47.72%)을 차지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취업형 비율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학력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불안정-취업형 〉 안정-취업형 〉 시장이탈-지속형 〉 불안정-시장진입형의 순위를 보여주는 한편,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청년집단에서는 안정-취업형 〉 불안정-취업형 〉 시장이탈-지속형 〉 불안정-시장진입형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이같은 구성 순위는 2020년에도 대학원 졸업을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는 불안정-시장진입형이 시장이탈-지속형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2011년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과 2020년의 두 시기 학력별 유형 분포를 비교해보면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 청년들에 있어 안정-취업형(-8.99% & -15.07%)이 크게 줄고 불안정-취업형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2011~2020년의 분석기간 동안 고학력 청년들의 일자리 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행궤적 유형별 학력 분포([그림 4] 예시)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2011년 대비 2020년 고졸이하 학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불안정-시장진입형에서 전반적인 학력 상승이 두드러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당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및 전문대의 재학생 신분에 있던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구직활동을 거쳐 취업

에 이르는 노동시장 지위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볼 수 있다. 따라서 2011년과 2020년의 비교를 통해 확인되는 학력별 이행궤적유형의 구성 차이는 취업여건과 인적자본의 변화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

[그림 4] 이행궤적 유형별 학력 분포

(단위: %)



2011년 혼인여부에 따른 분포에서 미혼 청년들의 경우 안정-취업형과 불안정-취업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39.04% & 39.20%) 기혼 청년들은 안정-취업형 및 시장이탈-지속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41.87%와 24.04%)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 대비 2020년에는 미혼 청년집단에서 안정-취업형(-8.25%)이 크게 감소하고 불안정-시장진입형(+5.02%)과 불안정-취업형(+2.26%)이 증가하였다면, 기혼 청년들의 경우 불안정-취업형(+3.63%)과 안정-취업형(+1.64%)이 작은 폭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거주지역에 따른 구성분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통적으로 안정-취업형 〉 불안정-취업형 〉 시장이탈-지속형 〉 불안정-시장진입형의 순서로 상대적 비율의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과 2020년의 비교에서도 별 차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유형 분포

(단위: 명, 세, %)

구분		안정-취업형 (594)	불안정-취업형 (436)	불안정-시장진입형 (165)	시장이탈-지속형 (266)	x^2
성별	남성	415 (61.85)	203 (30.25)	37 (5.51)	16 (2.38)	344.4586***
	여성	179 (22.66)	233 (29.49)	128 (16.20)	250 (31.65)	

평균연령			30.29	28.34	27.53	29.53	
2011년 연령대		초기 (19~24세)	38 (17.51)	95 (43.78)	54 (24.88)	30 (13.82)	115.9811***
		중기 (25~29세)	158 (38.54)	147 (35.85)	34 (8.29)	71 (17.32)	
		후기 (30~34세)	398 (47.72)	194 (23.26)	77 (9.23)	165 (19.78)	
2011	학력	고졸 이하	164 (26.24)	239 (38.24)	105 (16.96)	117 (18.72)	138.7970***
		전문대졸	165 (43.88)	101 (26.86)	29 (7.71)	81 (21.54)	
		4년제 대졸	240 (56.87)	88 (20.85)	30 (7.11)	64 (15.17)	
		대학원졸 이상	25 (65.79)	8 (21.05)	1 (2.63)	4 (10.53)	
	혼인 여부	미혼	244 (39.04)	245 (39.20)	71 (11.36)	65 (10.40)	69.3166***
		기혼	350 (41.87)	191 (22.85)	94 (11.24)	201 (24.04)	
	거주 지역	수도권	273 (41.30)	199 (30.11)	65 (9.83)	124 (18.76)	2.6323
		비수도권	321 (40.13)	237 (29.63)	100 (12.50)	142 (17.75)	
2020	학력	고졸 이하	144 (30.77)	174 (37.18)	50 (10.68)	100 (21.37)	57.3341***
		전문대졸	166 (41.09)	127 (31.44)	34 (8.42)	77 (19.06)	
		4년제 대졸	249 (47.88)	117 (22.50)	71 (13.65)	83 (15.96)	
		대학원졸 이상	35 (50.72)	18 (26.09)	10 (14.49)	6 (8.70)	
	혼인 여부	미혼	101 (30.79)	136 (41.46)	57 (17.38)	34 (10.37)	57.4087***
		기혼	493 (43.51)	300 (26.48)	108 (9.53)	232 (20.48)	
	거주 지역	수도권	277 (41.34)	203 (30.30)	63 (9.40)	127 (18.96)	4.5272
		비수도권	317 (40.08)	233 (29.46)	102 (12.90)	139 (17.57)	

주: ***p<.001

2) 이행궤적 유형들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들

청년들의 상이한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들에 대해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실행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청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이행궤적의 다양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그 영향력은 궤적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청년은 남성청년에 비해 다른 궤적유형과 비교하여 시장이탈-지속형에 빠질 확률이 4.5배~34.8배 높았으며, 불안정-시장진입형으로 나타날 확률 역시 2.1배~7.7배 높았고, 취업을 한 경우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3.7배 높았다. 이는 최근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정책담론의 주장과 달리 성별이 청년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고착화하는 핵심적 분절선(gender fracture line)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청년들을 지속적인 탈시장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밀어내는(pushing)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흥미롭게도 불안정-시장진입형이 다른 유형과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선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안정-시장진입형은 일정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안정 취업과 불안정 취업 그리고 시장이탈 지속형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 나이를 지나면 증가하는 U자형의 패턴으로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청년기의 연령대에서 나이가 들수록 안정 또는 불안정 취업 및 비경제활동의 지위로 고정되어 있기보다 노동시장에의 진입-구직/실업-취업(비경활 → 실업/구직 → 불안정 및 안정 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이 줄어들다가 일정 나이를 넘어서면 다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단적 노동시장을 가로질러 비경제활동에서 실업을 거쳐 불안정 및 안정 일자리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동성이 특정 연령을 경계 삼아 감소와 증대의 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학력이 안정적인 일자리의 이행궤적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청년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집단에 비해 안정-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고학력이 청년의 노동시장 지위개선에 중요한 선결조건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안정-취업형을 제외한 다른 3개 유형의 비교에서는 학력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청년 노동시장의 주변부(불안정 취업)나 외부(실업과 비경제활동)에 위치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에 의한 차별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미혼보다 기혼의 청년집단이 안정 또는 불안정 일자리의 취업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뒤늦게

노동시장에 진입(3.7배)하거나 지속적으로 그 외부, 즉 비경제활동의 지위(2.9배, 3.9배)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결혼이 (안정 취업이든 불안정 취업이든) 일자리의 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장이탈 지속형 및 불안정 시장진입형에 속한 청년들의 대다수가 여성임([그림 3] 참조)을 감안할 때 여성청년들이 결혼하는 경우 탈시장화 되거나 뒤늦은 시장 진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기혼청년집단의 성별 효과와 관련지어 논의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난히 뿌리 깊은 가족내 성역할 분담 관행이 청년집단들에게도 답습되어 기혼 남성은 가족부양에 대한 책무감으로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무관하게 취업하고 있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가사와 돌봄 등의 역할에 치중하며 노동시장의 이탈 또는 때늦은 진입이라는 이행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된다.

가족배경의 계층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구 특성 변수들의 유의한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대해 개인화 가설의 변수들에 비해 가족/가구배경의 변수들이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14세 당시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아버지의 학력 그리고 가구의 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안정 취업형 및 시장이탈 지속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시장진입형 및 불안정-취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어렸을 때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좋거나 부친이 고학력인 경우에는 청년들이 안정 취업과 시장이탈의 지속적 궤적에 속하기보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동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가구 자산이 많을수록 취업한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기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저계급의 담론이 청년 노동시장에서 일정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8〉 궤적유형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odds, 2011년 기준)

		준거: 안정-취업형			준거: 불안정-취업형		준거: 불안정-시장진입형
		불안정-취업형	불안정-시장진입형	시장이탈-지속형	불안정-시장진입형	시장이탈-지속형	시장이탈-지속형
성별 (준거: 남성)	여성	3.727***	7.667***	34.762***	2.057**	9.326***	4.534***
		(0.640)	(1.956)	(11.214)	(0.516)	(3.029)	(1.691)
연령		0.532	0.166***	0.711	0.313***	1.336	4.276***
		(0.172)	(0.066)	(0.278)	(0.102)	(0.438)	(1.617)
연령^2		1.010	1.030***	1.004	1.020***	0.994	0.975***
		(0.006)	(0.007)	(0.007)	(0.006)	(0.006)	(0.007)
교육수준 (준거: 고졸이하)	전문대졸	0.414***	0.241***	0.482**	0.581	1.164	2.001*
		(0.088)	(0.073)	(0.120)	(0.172)	(0.272)	(0.613)
	4년제 대학졸	0.241***	0.171***	0.220***	0.709	0.912	1.285
		(0.054)	(0.054)	(0.060)	(0.223)	(0.246)	(0.427)
	대학원 이상	0.165**	0.060**	0.165**	0.365	0.996	2.726
		(0.099)	(0.065)	(0.106)	(0.420)	(0.747)	(3.135)

결혼관계 (준거: 미혼)	기혼	0.735	2.690	2.855***	3.659***	3.884***	1.061
		(0.152)	(0.941)	(0.814)	(1.267)	(1.078)	(0.403)
14세 경제적 형편		1.112	1.469*	0.988	1.320	0.888	0.673*
		(0.131)	(0.240)	(0.143)	(0.204)	(0.122)	(0.114)
14세 아버지 교육연수		0.974	1.054	0.975	1.082*	1.001	0.925*
		(0.027)	(0.041)	(0.032)	(0.040)	(0.030)	(0.037)
14세 아버지 직업지위		1.008	0.994	1.017	0.986	1.010	1.024*
		(0.008)	(0.010)	(0.009)	(0.010)	(0.009)	(0.011)
가구소득(로그)		1.105	0.980	1.078	0.887	0.975	1.100
		(0.060)	(0.063)	(0.068)	(0.059)	(0.065)	(0.078)
가구자산(로그)		0.903***	0.952	0.963	1.054	1.067	1.012
		(0.027)	(0.040)	(0.037)	(0.041)	(0.038)	(0.044)
가구부채(로그)		1.000	0.983	0.955	0.984	0.955	0.971
		(0.024)	(0.032)	(0.028)	(0.031)	(0.027)	(0.033)
상수		12594.74*	1.88E+10***	15.900	1492126**	0.001	8.46E-10***
		(57206.14)	(1.03E+11)	(87.407)	(6573915)	(0.006)	(4.39E-09)
사례수		1,132					
x^2		569.86***					
R^2		0.1947					
Log pseudolikelihood		-1178.4699					

주1) 응답자 학력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력 포함 & 미포함 분석을 진행한 결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포함된 결과를 제시함.
주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음.
주3) *p<.05, **p<.01, ***p<.001

5. 맺음말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궤적유형들을 판별하고 그 궤적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취업한 일자리의 질을 구분하기 위해 헤도닉 가중치를 적용한 불안정노동지수(PLI)를 산출-적용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안정 취업, 불안정 취업, 실업/구직, 그리고 비경제활동으로 구성한 다음,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이행궤적을 유형화하였으며, 도출된 이행궤적유형들을 대상으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검토한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4가지의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 결과 '안정-취업형', '불안정-취업형', '불안정-시장진입형', '시장이탈-지속형'으로 나뉘어 동시대의 청년이라 할지라도 노동시장에서 확연하게 다른 이행궤적을 따르고 있으며, 불안정-시장진입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분석기간(10년) 동안 동일한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청년 노동시장의 다층적 분절성이 심각하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분석기간 동안 응답자의 최종 연령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연령(2020년 29-44세)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취업형의 분포가 전체 청년 중 40%밖에 되지 않으며, 시장이탈-지속형의 비율이 기존 선행연구들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은 오늘날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준다. 덧붙여 불안정-취업형에서 안정-취업형으로 이행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불안정한 일자리가 안정적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고착화를 가져오는 덫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둘째, 구조적 분절성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이행궤적에 영향 미치는 배경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화 가설과 가구 계층화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개인적 특성변인들과 가구/가족배경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화 가설의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구 계층화 관련 변인들 다수의 경우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화 가설에 따른 개인적 특성요인으로서 성별·연령·학력·혼인여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들 개인적 조건 모두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의 정도와 방식에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여성청년이 남성청년과 비교하여 안정 취업 지속형, 불안전 취업 지속형, 시장이탈-지속형, 불안정-시장진입형의 모든 구획에서 빠짐없이 취약한 지위에 놓일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에서 청년 노동시장에서도 성별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2) 연령의 경우에는 불안정-시장진입형이 다른 3개 이행궤적 유형과 비교하여 U자형으로 일정 나이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외부(비경활)로부터 실업/구직을 거쳐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경우 그들의 이동이 일정한 연령까지 소극적이다가 그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3) 전문대 이상 졸업의 고학력이 다른 이행궤적유형들에 대비하여 안정 취업 지속형에 속할 현저히 높은 확률을 담보하는 핵심 조건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기혼 청년들이 (안정-취업형과 시장이탈-지속형과 비교하여) 불안정-시장진입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를 갖추는 개인 조건이 노동시장과 취업에의 진입-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는 최근의 정책담론이나 청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MZ세대

론 등과 달리 청년 내부의 뚜렷한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별과 학력이 청년 노동시장의 단절성을 고착화시키는 중차대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존하는 구조적 분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노동시장 이행에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고졸 이하의 저학력 청년의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노동시장의 분절성에 가구 계층화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가구 자산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구 자산으로 국한되긴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기회가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가구자산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다시 자산축적으로 이어져 청년집단 내부의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분석결과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청년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한 학술적인 논구와 정책적 대응은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성을 이해하고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가 청년 노동시장 분절성의 재생산 구조를 판독해내는 유의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다음의 여러 한계를 인정치 않을 수 없는 만큼 이들 문제를 풀어가는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 10년(2011～2020년) 기간의 이행기간에 대한 분석임에도 4개 이행궤적의 고정적 유형화로 인해 2011년 시점에 국한하여 개인과 가구의 변수들로 구성된 횡단적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여 개인과 가구의 특성요인들에 있어 10년간의 변동을 반영하는 시계열 분석을 적용하였다는 점, 개인화 가설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직업력 정보(예: 취업과 실업/구직의 빈도와 기간, 보유 자격증 수, 직업훈련 참여여부 등)를 고려치 못한 점이나 성별과 학력 및 혼인여부의 상호 조절효과를 검토치 못한 점, 그리고 가구계층화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가구 소득·자산·부채에 대해 청년들의 취업활동이 영향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인과성을 따져보지 못하였고, 청년 내에서도 연령적 특성(초기/중기/후기)에 따라 변수의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청년들의 결혼이나 세대분리/독립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분석상의 한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후 연구과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2016).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5-29.

김성남, 하재영. (2018).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進路敎育硏究, *31(4)*, 89-111.

김진주, 조민효. (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4)*, 35-65.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박나리,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박성재, 반정호. (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1)*, 163-190.

반정호. (2010).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 노동리뷰, 67, 3-15.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신진욱. (2022).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개마고원.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이민서, 김사현. (2021). 청년 니트(NEET) 변화 유형 비교: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2)*, 71-101.

이병훈. (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157-179.

이병훈, 김은경, 송리라. (2022). 헤도닉 가중치 및 불안정 강도를 활용한 불안정 노동의 다차원적 분석. 한국사회정책, *29(1)*, 49-77.

이병희.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2(1)*, 1-18.

이용호, 이원익. (2022).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3)*, 339-364.

이왕원, 김문조, 최율.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연령, 기간 및 코호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247-284.

홍성표, 임한려. (2020). 대학 소재지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분석: 수도권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4)*, 117-147.

황선재, 계봉오. (2018).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사례와 함의. 한국인구학, *41(4)*, 65-88.

Hardgrove, A., Mcdowell, L. & Rootham, E. (2015). Precarious lives, precarious labour: family support and young men's transitions to work in the UK. Journal of Youth Studies, 18, 1-20.

Jones, B. L. & Nagin, D. S. (2013). A Note on a Stata Plugin for Estimat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2(4)*, 608-613.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Lee, B. & Kim, J. (2012). A Causal Analysis of Youth Inactiveness in the Korean Labor Market. Korea Journal, 52, 139-165.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157.

Nguefack, H. L. N., Pagé, M. G., Katz, J., Choinière, M., Vanasse, A., Dorais, M., Samb, O. M. & Lacasse, A. (2020). Trajectory Modelling Techniques Useful to Epidemiological Research: A Comparative Narrative Review of Approaches. Clinical Epidemiology, 12, 1205-1222.

Roberts, K. (2009). Opportunity structures then and now.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2, 355-368.

Abstract

The Segmentation of Youth Labor Markets in South Korea: A Focused Analysis on the Classification of Transitional Trajectories

Byoung-Hoon Lee* · Eunkyung Kim** · Hanna Kim***

This study examines transitional trajectories and affecting factors in youth labor markets, by drawing upon the 2011~2020 year of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urvey. The Precarity Labor Index (PLI), measured with Hedonic weights, is calculated for estimating job quality of the employed youth, and transitional trajectories are identified by applying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to the youth sample, comprised of decent job holders, precarious job holders, the unemployed, and the inactive. The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classifies four trajectories, such as the decent job holding, the precarious job holding, the market entry to precarious jobs, and the market exit, which evidence the heterogeneity of transitional courses in youth labor markets. It is noteworthy that three trajectories, including the decent job, the precarious job, and the market exit, witness the segmented structure of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s, in that they are commonly characterized as the sustained pattern in the examined period. Multi-logistic panel regression analysis is applied for identifying major factors to affect the trajectories of the youth in labor market.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industrialization factors, such as the gender, age cohort, education, marriage and living loc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he youth's labor market status, and in particular the gender and education are the very factors to reproduce the structural segmentation of youth labor markets. The household stratification factors, including the education and job status of parents as well a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household, have a weak or insignificant impact over the youth's labor market status. Our study impli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and important to comprehend the segmented structure of youth labor markets in attempting to tackle with the precarity of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s.

Keywords: Youth labor markets, Labor market segmentation, Classification of transitional trajectories, Individualization hypothesis, Household stratification hypothesis

◈ 2023. 7. 30. 접수 / 2023. 9. 4. 1차수정 / 2023. 9. 5. 게재확정

*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bhlee@cau.ac.kr)
**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witheunk@gmail.com)
***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gkssk4300@gmail.com)